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afe.daum.net/yonseielection
facebook.com/yonseielection
yonseielection@gmail.com

2017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선거 정책자료집

11/14 (월) 11:50 신촌 **1 차 합 동 유 세** @학생회관 앞
11/15 (화) 19:30 국제 **정책토론회&합동유세** @송도2학사 치킨계단
11/17 (목) 12:00 신촌 **정 책 토 론 회** @학생회관 앞
11/21 (월) 12:50 신촌 **2 차 합 동 유 세** @학생회관 앞

...

11/22 (화) 신촌 09:00
국제 11:00
11/23 (수) ~
11/24 (목) 신촌 19:00
국제 21:00

2017학년도 학생회 선거
투표  **기간**

11/25 (금) 00:00 신촌 **개 표 및 당 선 공 고** @학생회관 로비

11월 22~24일(화~목)은 2017학년도 학생회 선거 투표일입니다.
연세 학생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제28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당신의 주변에, 어디에나 있는

around

K
H

당신의 주변에 어디에나 있는
around



후보 소개	04
총여학생회론	06
기조	08
정책	10

“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세상이 더 좋게 바뀌는 곳에 서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라는 내가 사랑하는 작은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한 곳이 되었으면 해서. 그 누구도 이 작은 사회에서 폭력과 억압과 차별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해서. 물론 지극히 작은 내 개인이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어느 누군가는 꿈꾸는 걸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땀은 손이 닿는 만큼은 바꾸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주변에, 어디에나 있으면서요.

”

**정후보
마태영 (신학 3)**

2014

연세대학교 신학과 입학
중앙 성소수자동아리 <컴투게더> 활동(-2016)
신과대학 찬양동아리 <알파와오메가> 활동
제2대 국제캠퍼스 무악하우스 자치회원

2015

언더우드기념사업회 해외봉사 4기 기장
연세대학교회 유초등부 교사
세브란스 소아청소년암센터 자원봉사자
은천지역 아동센터 멘토

2016

제53대 신과대학 학생회 <Among> 부학생회장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음주문화 TFT 활동
연세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TFT 활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년젠더활동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턴



“

2015년 <세상을 다시보는 페미니즘> 세미나를 계기로 학번, 나이 상관없이 상호존대, 상호반말의 평등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와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학문인 페미니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생활은 제 대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 경험이었습니다. 이 대안적인 공동체가 학내에 더 많이 존재했으면, 그리고 권력관계로부터 배제되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학내에서 계속 이어져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부후보
임소영 (생활디자인 4)**

2013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입학

2015

생활디자인학과 창작학회 <PLAB> 활동
연세대학교 페미니즘 포럼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기획단원

2016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꽃눈> 집행부원
제27대 총여학생회 <잇다> 집행부원



2017년의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총여학생회는 학생사회에서 이러한 의문을 가장 많이, 그리고 이례적으로 받는 존재일 것이다. 1960년대 학생 전체의 결사인 각 대학 총학생회가 학원 민주화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이후, 1980년대에 여학생의 결사인 총여학생회가 탄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가?

총여학생회는 여타 정치적 결사가 그렇듯, 회원들의 권리 보장이 절실했기에 탄생하였다. 1980년대 대학은 성적 차별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학내에서 여학생들은 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소수자였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과 차별을 마주해야 했다. 여학생을 아예 받지 않는 교수님이 존재하였고, 강의실, 과방과 동아리 공동체, 심지어 학생 운동 진영 내부까지도 성폭력에서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었다. 운이 좋아 성폭력을 피해가더라도, 여학생들은 학업과 휴식, 연애, 어떠한 활동을 할 때도 성별과 얽혀있는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렇듯 총여학생회는 성폭력과 성적 차별, 불평등이라는 현실로부터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성찰을 통해 활동해온 총여학생회는 소수성과 불평등, 차별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다. 그리고 여성의 소수성에 대한 고민은 장애인권, 성소수자인권 등 다양한 범주의 소수자인권의 추구로 이어졌다. 총여학생회는 궁극적인 평등과 권리 보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와 권력 체계가 바뀌어야 함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여학생회가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더 이상 성적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는 물음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2017년 우리는 성평등을 마주하고 있는가? 이제 '여성 문제'라는 것은 없는가? 이제 우리는 '단톡방'에서, 과/반/동아리 행사에서, 강의실에서, 혹은 다른 어떤 학내의 공간들에서 평등을 마주하고 있는가? 한 해 총여학생회를 통한 성폭력 상담이 200건을 넘어가는 현실에서(연세대학교의 여학생은 전체 8000명 정도이다) 이러한 물음은 다소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부터 2016년도까지의 '현실' 속에서 총여학생회는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 폭력에 맞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2017년, 총여학생회의 역할은 폭력에 '대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폭력은 결국 권력관계와 문화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폭력을 만들어내는 권력 관계와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꿈꿔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반차별과 평등, 궁극적인 회원의 존재를 지켜나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폭력과 차별, 혐오가 사라지는 그 때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뿐 아니라 권력 구조 하에 '수행'하던 모든 존재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는다. 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총여학생회'에 대한 질문이다.

제27대 총여학생회 평가

함께 걷는 우리 여기서, <있다>

제27대 총여학생회 <있다>는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에 이어 다시 한 번 총여학생회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있다>는 비교적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총여학생회로 자리하며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반성폭력

2016년에도 학내 성폭력 피해 접수가 많았습니다. 성폭력 피해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27대 총여학생회 <있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있다>는 피해자 대책위원회 구성 및 성평등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있다>의 적극적인 사건 대응은 학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사건을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학내 반성폭력 문화가 확산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반혐오, 반차별

제27대 총여학생회 <있다>는 반성폭력 뿐 아니라 학내 차별과 혐오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일상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차별과 혐오를 공론화하고,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 나갔습니다. 먼저차별 캠페인과 각종 자보들을 통해 차별의 경험들을 가시화하였고, <총여대전>을 통해 차별적인 문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페미니즘 세미나 개최와 학내 페미니스트 네트워킹, 국제캠퍼스 movie night 개최 등 여러 공간들을 통해 대안적인 문화의 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제27대 총여학생회 <있다>는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이 마련한 반성폭력 활동을 기반으로 반성폭력과 관련한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반성폭력 뿐 아니라 혐오나 차별,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세심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변화를 이뤄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있다>는 <총여대전>등을 통해 학내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소수자적 경험들이 흩어지지 않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있다>의 활동들은 총여학생회가 구성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개인의 소수자적 경험이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around>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제28대 총여학생회 선본 <around>는 <있다>가 만들어둔 기반에 힘입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함께 걷는 우리 여기서, <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의 주변에, 어디에나 있는
around

제28대 총여학생회

당신의 주변에, 어디에나 있는 <around>의 기초를 소개합니다.

1.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려 합니다.

혐오와 차별, 폭력을 만들어내는 권력 구조와 제도, 문화의 변화를 이뤄내려 합니다. 연세대학교를 이루고 있는 2만 명의 개인들, 학교의 제도, 수업, 학생사회, 수많은 행사와 공동체들, 존재하는 문화들을 꼼꼼히 살펴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발생하는 폭력, 차별과 혐오에 적극적으로, 그러나 세심하게 접근하여 존재하는 권력구조를 드러내고 재배치하는 과정을 공동체가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방향성은 '사람', 우리의 변화일 것입니다. 개인이 자유로울 수 없는 불평등한 구조 속의 자신을 깨닫고 권력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은 교육, 강연의 기회들과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는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획득하고, '말하며' '연대할' 수 있는 공론장과 새로운 채널들을 마련하겠습니다. 혐오, 차별, 억압들이 드러나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하며 누군가의 이야기들이 삭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학내에 대한문화의 영역들을 확장하는 활동들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2. 소수성에 대해 고민하려 합니다.

학생사회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는 고려되지 않기 쉽습니다. 치우친 권력관계 내 형성된 공동체에서 익숙하고 당연한 것은 상대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학내 여러 영역에서 각각 배제된 구성원들의 학업과 활동, 문화를 보장하는 데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 외국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 누구나 자신이 가진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축제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개인들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3. 힘 있는 총여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학내에서 어떠한 정체성에 의해 차별, 혐오, 폭력을 겪거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의 권리를 대변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건의함 개설, 성폭력-차별-혐오 사례 수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려 합니다. 학내에서 어떠한 정체성에 의해 겪고 있는 차별, 혐오, 폭력, 보장되지 않는 권리,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혹은 어떤 이야기라도 말씀해 주신다면 항상 여러분의 첫 번째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치우쳐진 권력관계 하에서 변화가 개인의 몫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치적 결사들이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야기를, <around>는 하겠습니다.

<around>는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1. 당신 그 자체로 충분할 수 있도록

1980년대, 여학생들은 학업과 휴식, 연애, 어떠한 활동을 할 때도 성별과 얽혀있는 규범과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2016년, 아직도 우리는 매일 성적 소비와 왜곡된 규범, 폭력을 마주합니다. 성별, 젠더,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여부, 종교, 인종 등 어떠한 특성이든 그것이 억압의 대상이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around>는 우리의 몸과 생활을 묶어내는 억압들이 사라지고, 당신이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그 자체로 충분한 공동체를 목표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 주변에, 어디에나 있는 차별과 혐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성별, 젠더,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여부,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혐오와 차별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차별과 혐오는 한 편으로는 극단적인 폭력으로 나타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알아차리기 힘들게 나타나거나, '당연한 것'으로 둔갑합니다. 따라서 혐오는 종종 나쁜 개인만이 저지르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긴다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에 따른 억압과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등한 권력의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불평등한 권력 관계 하에 살아가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언어를 통해 드러내고 권력 구조를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폭력과 차별, 혐오가 사라지는 그 때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뿐 아니라 권력 구조 하에 '수행'하던 모든 존재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변에, 어디에나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제28대 총여학생회 선본 <around>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힘 있는 총여학생회:

"Ring my Bell" 프로젝트 시행

강의실 내 혐오발언 대응

몰래카메라 탐지 사업

차별, 혐오, 폭력에 맞서 여러분의 권리를
대변하는 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나요?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부당한 일이 있나요? 벨을 울려주세요"
기울어진 권력관계 속에서 우리는 학내에서도 일상적으로 폭력과 차별, 혐오를 마주합니다. 다수
에 의해 구성된 공동체 속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말 못할 고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
장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권리가 있을 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이야기라도 털어놓고 싶을 때, 언제든지 벨을 울려주세요. 여러분의 첫 번째 지지자로서, 권
리를 대변하는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상상하겠습니다. 아픔도, 무기력도, 분노도 함
께함으로써 그것이 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여학생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변화는 온전히
용기를 낸 개인의 몫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구글독스 / 오프라인 수신함을 통해 언제든지
총여학생회에 말을 걸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강의실 내에서 교수의 차별 및 혐오발언을 경험하곤 하지만, 학점 걱정 때문에 혹은 내가 지나치
게 예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 발언도, 당
신의 아픔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많은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부당함입니다.
<around>는 여러분이 경험한 강의실 내 차별, 혐오발언에 대하여 오프라인 항의로 대응하겠습니다.
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강의실 건물 앞 1인 피켓 시위 (혐오발언을 적은 피켓), 엑스배너 설치, 사례모
임 게시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혐오발언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며, 부당하다는 것을 가
시화하고, 차별, 혐오 발언의 당사자가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성폭력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몰래카메라입니다. <around>는 두려움에 공공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억합
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과연 우리 학교는 안전할까요? <around>는 학내에서 여성들이 와 닿는 안전을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의 협조를 얻어 화장실과 탈의실, 휴게실 등 몰래카메라가 설치될 가능성
이 높은 곳에 대하여 학내 몰래카메라 탐지 사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처벌에 앞장서겠습니다.

문화의 변화를 만들다

: '언어' '사람' "드러내기"

혐오와 차별, 폭력이 녹아있는 기존 문화의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획득하고, 말하며 '연대할' 수 있는 공론장과 새로운 채널들을 마련하겠습니다. 혐오, 차별, 억압은 드러나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하며, 누군가의 이야기들이 더 이상 삭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학내에 대안문화의 영역들을 확장하는 활동들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숲 :
페미니즘 대숲 개설 (혼자가 아닌 우리)

학내 페미니스트 네트워킹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vol.3
- 페미니즘 세미나 개최

MOVIE NIGHT (영화가 함께하는 밤)
- 대안영화 상영회

대화를 나누는 숲 :
페미니즘 대숲 개설(혼자가 아닌 우리)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차별과 혐오와 폭력에 직면했던 개인들의 고백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around>는 그 이야기들을 모으겠습니다. 제각기 흩어져있는 소수의 고백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써 함께 터져 나올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구글독스를 이용해 제보를 받고, 그 제보를 익명으로 업로드하여 담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의 변화는 언어를 통해 드러내고-깨닫고-권력 구조를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권력 구조 하에 우리가 속해 있는 불평등한 구조를 인식함과 동시에 누군가는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서 말하고, 듣고,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학내 페미니스트 네트워킹

학내에는 다양한 페미니즘 단체들이 있습니다. <around>는 다양한 페미니즘 단체들이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합니다. 평등을 꿈꾸는 개인들이 모임을 만들고, 모임을 이어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around>는 존재하는 모임에 홍보, 공간 대관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치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변에, 어디에나 있는
arolind

MOVIE NIGHT (영화가 함께하는 밤)
- 대안영화 상영회

우리의 일상에 깊숙히 자리잡은 문화생활, 영화! 그렇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언제나 남자 히어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구출되는 여자주인공,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남자 캐릭터 등 기존의 성역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캐릭터들을 만나게 됩니다. <around>는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화, 이성애 중심적인 영화들이 아닌, 다양성과 반폭력 등 대안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안영화(여성주의 영화)를 함께 보고 이와 관련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vol.3
- 페미니즘 세미나 개최

사회적인 억압에서 타자화된 개인을 넘어, 새로운 눈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포럼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영역과 담론들을 넘나들며 우리의 세상과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 합니다. 때론 유쾌하게, 때론 진지하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새롭고 신선한 공간에서 다시 한 번 모두와 함께하려합니다.



학생사회 내 반성폭력, 반차별

학생사회 곳곳에서 반성폭력, 반차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반성폭력 정기 강연 개최

수많은 강연들이 여성주의라는 이름 아래 모여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의 주제로 묶기에 각각의 주제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특히 반성폭력 문화를 위한 교육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around>는 특별히 성폭력과 관련된 정기 강연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반성폭력 개괄 강연, 커플 대상데이트폭력 강연, 학내 반성폭력 문화 강연,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된 강연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반성폭력 강연의 접근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학내 성평등 모니터링

당신의 일상은 성평등합니까? <around>는 학내의 공간 곳곳과 학생, 교직원, 교수를 아우르는 학내 성평등 실태 파악과 변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첫째,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총여학생회 주도의 공동체 자치규약과 문화를 포함하여 학내의 전반적인 성평등-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인지 교육 내실화

지금까지 새내기 오리엔테이션과 새내기배움터에서 이루어진 성인지 교육은 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똑같은 예시의 반복으로 2,3,4학년에게도 새로움을 주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성인지 교육은 그 수강 대상의 특수성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되어서 마주할 수 있는 폭력들에 대해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around>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인지 교육이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와의 연합채널 구축

연세대학교는 고려대학교와 함께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책임 소재와 해결 과정은 매년 달랐습니다. 그 어떤 일관된 매뉴얼도,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특정 개인과 해당 과로만 움직이던 책임을 더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합동운동전, 연고전과 같은 교류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혐오, 사건들에 대응하고, 교류행사를 위한 양교 자치 규약을 만들겠습니다. 당신 곁에 <around>가 있습니다.

학생폭력을 하는 학생 (혹은 지인)으로부터

학생폭력을 하는 학생 (혹은 지인)으로부터
학생폭력을 당한 학생 (혹은 지인)으로부터
학생폭력을 당한 학생 (혹은 지인)으로부터
학생폭력을 당한 학생 (혹은 지인)으로부터
학생폭력을 당한 학생 (혹은 지인)으로부터
학생폭력을 당한 학생 (혹은 지인)으로부터
학생폭력을 당한 학생 (혹은 지인)으로부터
학생폭력을 당한 학생 (혹은 지인)으로부터
학생폭력을 당한 학생 (혹은 지인)으로부터
학생폭력을 당한 학생 (혹은 지인)으로부터

인권가이드

인권가이드
인권가이드
인권가이드
인권가이드
인권가이드
인권가이드
인권가이드
인권가이드
인권가이드
인권가이드

단과대 단위 여학생회 및 여학생위원회, 성평등 위원회 창립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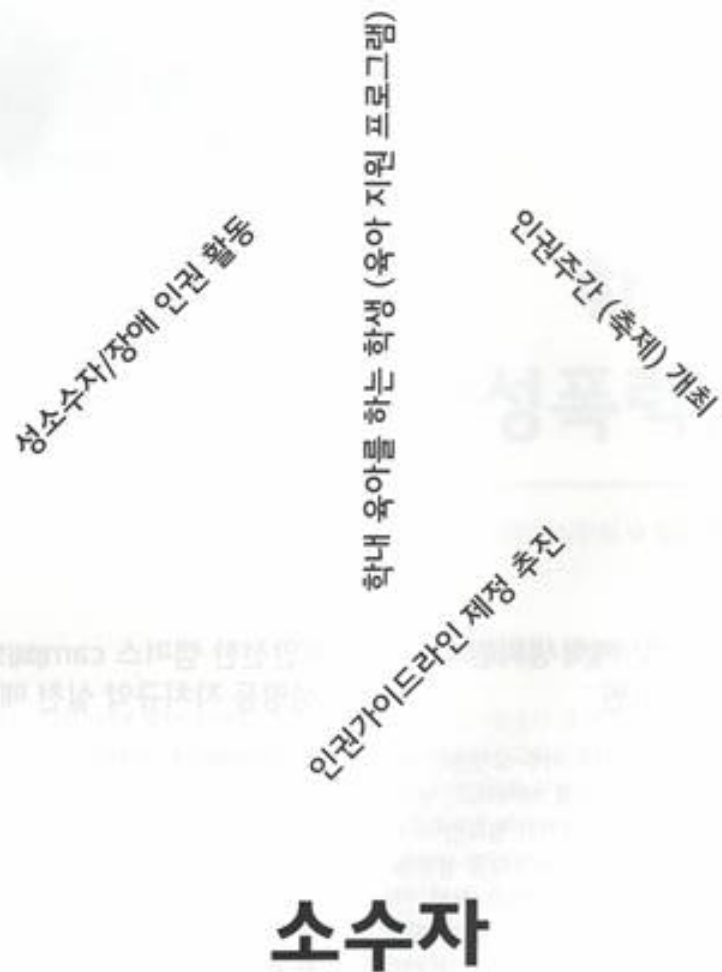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지탱해온 명제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해체하고,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래부터 위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신과대학은 여학생회가 존재하고, 문과대학은 성평등 위원회가, 이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에는 여성주의 학회, 간호대학에서는 여성주의 소모임이 존재합니다. 더 많은 연결과 연대, 변화를 위해 어디에나 있는 <around>가 단과대학 여학생위원회, 혹은 성평등 위원회, 혹은 여성주의 학회 설립에 함께하겠습니다.

학내 성폭력 대자보전

지난 1년 참 많은 성폭력 사건이 학내에 있었습니다. 연재나 성폭력 사건들은 학내에 존재했지만, 많은 수가 최근 들어서야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이야기들은 학내에 다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폭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around>는 따라서 더 많은 연세 학우들이 학내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공동체 내에서 함께 바꿔 나가길 바라며 성폭력 사건 대자보전을 준비합니다. 이상하고 나쁜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관계(특히 젠더 관계)의 불평등함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캠퍼스 campus safety> 성평등 자치규약 실천 매뉴얼 제작

2008년 3차 개정된 성평등 자치규약은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원칙들을 충실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체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 내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이행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고 반폭력, 반차별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각종 숙박 행사에서, 과/반/동아리 공동체에서, 축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공간 분리부터 숙박 행사를 주관하는 임원들의 성인지 교육, 자치규약에 대한 안내 등 풍부한 내용을 구성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공동체 및 행사주최단체, 자치단체들과 협의하여 단순한 '매뉴얼 제작'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매뉴얼이 만들어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학생사회의 실질적 변화로 향하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자

과연 우리는 연세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릴까요? 학생사회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는 고려되지 않기 쉽습니다. 치우친 권력관계 내 형성된 공동체에서 익숙하고 당연한 것은 상대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학내 여러 영역에서 각각 배제된 구성원들의 학업과 활동, 문화를 보장하는 데에 함께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 외국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 누구나 자신이 가진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축제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내 육아를 하는 학생 (육아 지원 프로그램)

학내에도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육아를 한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거나 그 존재가 배제되기 때문에 관련한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 전무합니다. 당장 학칙에도 임신/출산/육아 휴학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기에 육아를 하는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조모임 시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사람,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자퇴와 짧은 휴학 중에 고민하게 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around>는 이제까지 그 존재가 고려되지 않았던 다양한 소수자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학칙 제정, 학내 수유실 마련, 조모임 시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사회에서 배제당한 집단은 제도에서 또한 배제당합니다. 차별과 폭력과 억압에 대한 연세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담긴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인권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명제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동의만으로는 현실에서 닥친 인권 침해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어렵기에, <around>는 연세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담긴 연세의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그 어떤 연세 구성원도 당연하게 가져야 하는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모두가 합의한 규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주간(축제) 개최

총학생회는 대동제 그리고 총동아리연합회의 경우 동아리박람회 등의 대표적인 연례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총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행사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round>는 총학생회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학내의 다른 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인권 가시화 주간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권은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성인권이 낮은 곳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높을 수 없습니다. 인권, 즉 사람의 당연한 권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회에서 침해당한다면, 그 차별의 공식은 다른 곳에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학생회는 모든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연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써 너무나 당연하게 눈앞에 보이는 연대의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나날들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인권 강연, 부스 및 전시, 캠페인의 형식으로 <around>는 인권이 인권으로써 다시 서는 시간을 풍성히 채울 것입니다.

성소수자/장애 인권 활동

성소수자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지향성을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 속에 자신의 지향성과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 인식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종종 삭제됩니다. 또한 학내에서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수업권 등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은 아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존재함에도 인식과 제도, 문화 모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around>는 성소수자 및 장애인권 동아리/단체들과 협력하여 성소수자 인권 세미나와 소수자 차별 인식 캠페인, 새내기 젠더 교육, 장애차별사례 개선 등의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변에, ● ● 어디에나 있는

당신의 주변에, 어디에나 있는
around

당신의 삶에 함께하겠습니다.

대안생리대 공동구매
월경 캠페인

여성 커뮤니티 활성화
(운동, 게임 등)

월경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신체적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월경은 너무나 많이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함부로 월경을 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문화는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몸과 환경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생리대의 존재까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around>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유롭게 자신의 몸에 관련된 사항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말입니다. 대안생리대 전시 및 소개 부스, 공동구매를 통해 <around>는 월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여성들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왜 언제나 운동부의 여성은 매니저로 한정될까요? 게임을 하는 여성은 어쩌서 그렇게 쉽게 성차별적 언어들에 노출되어야만 할까요? <around>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역할이 제한되지 않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겠습니다. 야구, 축구, 농구, 롤, 오버워치 등 고정적인 성역할에 의해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활동들을 여성도 누릴 수 있도록 공간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학내에 기존에 존재했던 여성 운동팀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또한 연대하여 도움으로써 지속성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겠습니다.

페미니즘 도서관 (페미너리) 활성화,
물품대관사업

학내에 대안적인 공간과 생활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페미니즘 도서가 읽고 싶은데 모두 대출중이라면, 혹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다면, 고데기나 풀, 생리대가 필요하다면 학생회관 324호 총여학생회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round>는 기존 페미니즘 도서들 및 각종 생활용품들을 총여학생회실에 준비해 두겠습니다. 연세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생활의 공간에서 함께하려 합니다. 총여학생회실이 치우고 편안하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휴게실 지도

학내에 마련된 다양한 여학생휴게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여학생들은 각 단과대에 설치된 여학생휴게실의 위치만을 아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around>에서는 각 단과대마다 다른 여학생휴게실 이용 시간이나 물품 현황을 체크하고 이를 연세 여학우 모두에게 알려드립니다. 여학생휴게실이 더 따뜻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으로써 연세 여학우들의 삶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학생휴게실 지도 제작 및 배포, 여학생휴게실 물품 지원 여학생휴게실 담당자 선정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디에나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제28대 총여학생회 선본 <around>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2017년, 총여학생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은 정말 많습니다.

당신의 주변에, 어디에나 있는
around

